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7장: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또한 복음의 율법으로 대치되었다. (10~15분)

여러분이 지키도록 부모님이 정한 가족 규칙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노트에 적고 나서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누가 이 규칙들을 만들었는가?
- 여러분은 그것들을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는가?
- 청소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않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은 어떤 것들인가?
- 이 규칙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축복이 되는가?

나이가 들에 따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세우신 규칙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왔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전통과 규율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바울이 사용하였던 비유를 찾아보면서 **로마서 7장 1~6절을 읽는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칠 때 요점을 잘 나타내 주는 비유를 생각해 내는 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로마서 7:1~6] 그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절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충절에 비유하였다. 남편이 살아있는 한, 아내는 그에게 속해 있으며, 그의 법에 순종해야만 하였으며, 다른 남자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간음한 여자가 되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을 때는 남편은 더 이상 아내의 행동을 지시할 수가 없으며, 그 아내는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죽은 남편에게 예속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과 율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관계였다. 율법이 살아 있고 따라서 그것이 유효하다면, 이스라엘은 율법과 결혼한 것이었으며, 또 그 규칙에 순종할 필요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추종하였거나 다른 종교를 따랐다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율법은 성취되었으며,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이, 곧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였으며, 그분의 복음 율법에 이제 순종을 해야만 하였다”(브루스 알 맥콩키, 신약 교리 주해서, 2:253~254)

모사이야서 13장 27~30절과 엘마서 34장 9~13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한다.

-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가?
- 바울의 시대에 일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에 매달려 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 바울의 시대에 어떤 사건이 모세의 율법을 성취시켰는가?

로마서 7장 7~25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으며 또 복음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의 많은 국면들을 대치하였다는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였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는 로마서 7장의 많은 부분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으며 이 원리를 명확하게 해 주고 있다.

(조셉 스미스 역 로마서 7:7-2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잡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도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었나니라. 이는 전에는 범법이 없이 내가 살았으나, 그리스도의 계명이 이르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또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제정된 그리스도의 계명이 이르렀는데 이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나는 그것이 나를 사망에 이르도록 정죄함을 아는도다. 이는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을 부인하고 나를 속이더니, 그에 의해 내가 죽임을 당하였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이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임을 아는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나타나 나를 죽게 만들려 함이니,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무릇 우리는 계명이 영적인 줄 아노라. 하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음이니라.

“그러나 이제 나는 영적이니 이는 내가 행하라 명 받은 바를 행하며 또 허락되지 아니하도록 명 받은 바를 나는 허락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는 내가 알기에 옳지 않은 것을 나는 행하려 하지 않음으로 죄가 되는 것은 내가 미워함이니라. 그러할진대 만일 내가 허락하려 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 함에 동의하는 것이니 나는 정죄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하면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도리어 나는 내 안에 거하는 그 죄를 굴복시키려 하는도다.

“무릇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알며, 무릇 의지는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라. 무릇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행하였을 선은 선하지 않음을 내가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나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에서 행하고자 아니한 악은 내가 선함을 알게 되었나니 이를 나는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하여 율법 아래에서 행하고자 아니한 것을 행하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더이상 내가 잘못 행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안에 거하는 죄를 굴복시키기를 구하노라. 그리하여 율법 아래에서 내가 안 것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는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율법을 보나니 곧 그리스도의 계명이라, 이는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도다.

“그러나 내 지체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만일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죄의 법을 섬길진대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조셉 스미스 역 로마서 7:7-27)